

제18356호 2판  
2009년 5월 2일 토요일



7집 '꽃, 다시 첫번째'로 6년만에 컴백  
**박지윤**

## 춤 대신 기타... 스물일곱의 변신

“예전 댄스 가수 시절도 저의 모습이니 ‘잊어달라’는게 아닙니다. 20대 후반의 박지윤(27)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이번 음반에 담은 것 뿐입니다.”  
가수로는 6년의 공백을 깨고 7집 ‘꽃, 다시 첫번째’를 발표한 가수 박지윤이 28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갤러리 겸 카페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7집은 발매 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한 박지윤이 기타를 기반으로 한 어쿠스틱한 사운드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1997년 1집 ‘하늘색 꿈’으로 데뷔해 댄스 히트곡 ‘난 남자야’, ‘성인식’을 부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길이다.

“7집은 제게 첫 번째 음반 같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가창자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처음 곡 작업을 하고 프로듀서로 참여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담았죠.”

이번 라이브로 공개한 자작곡 ‘봄, 여름 그 사이에’는 자신이 봄과 여름 사이에 있던 사람이 생각나 가사를 썼다고 한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소멸해 간다는 내용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박지윤은 음반을 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데 대해 “어린 시절 데뷔한 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 휴식이 필요했다”며 “자신이 없었고 나의 길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연예인이 하고 싶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길을 갈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걸 찾은 뒤 음반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도 됐다. “그런데 한 번으로 걱정도 됐다. 박지윤의 이번 음반은 지금의 시장 트렌드인 후렴구가 강조된 일렉트릭으로 사운드의 음악에서 벗어나 있어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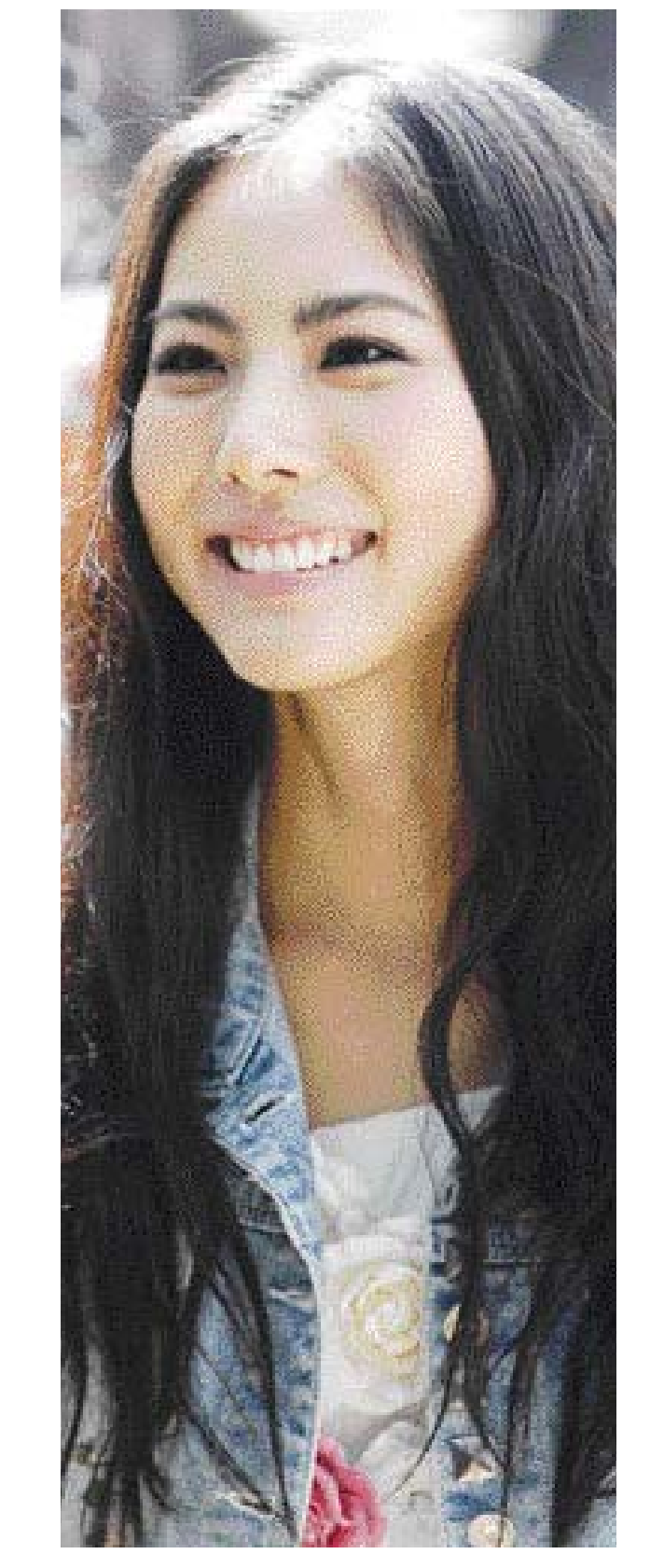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분명히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생각이 흔들렸다면 음반이 못 나왔겠죠. 하지만 주위에서는 박지윤이 대중적인 댄스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간곡히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우려했죠.”

박지윤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고민은 있었지만 잘 되고 못 되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내가 무대에서 감동 받으며 노래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러 “댄스 가수 때의 박지윤을 버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버리는 건 아니다. 그것도 나니까”라며 “예전과 같은 댄스 음악은 안할 것 같다. 내가 원래 춤을 잘 못 춰 예전에도 춤추는 걸 힘들어했다. 그때도 8개월씩 열심히 연습해야 했다. 오랜 시간 춤을 안 추니 예전으로 돌아갔다. 옛날 활동 영상을 보면 ‘저때는 잘했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웃었다.

“기회가 닿으면 연기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는 그는 “려원, 비, 박카, 소이 등 나를 잘 아는 주위 동료는 음반을 들고 어색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며 “너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다”는 응원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7집에는 수록곡 9곡 중 ‘봄, 여름 그 사이’, ‘그대는 나무같이’, ‘괜찮아요’ 등 박지윤의 자작곡 3곡과 별의 김중완이 작곡한 ‘4월16일’,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작사한 ‘잠꼬대’, 루시드폴이 작곡한 ‘봄 눈’, 비의 ‘레이니즘(Rainism)’을 쓴 작곡가 배진렬 씨가 만든 ‘돌아오면 돼’ 등이 수록됐다.



“댄스가수 박지윤 버리는 건 아니다 그것도 나니까”



왼쪽부터 김지영, 김조진, 손태영

최근 엄마가 된 탤런트 김지영과 손태영이 나란히 드라마에 복귀한다.

두 사람은 ‘아내의 유혹’ 후속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방송되는 ‘두 아내’(극본 이윤선, 연출 윤류혜)에서 김조진의 두 아내로 호흡을 맞춘다.

탤런트 남성진과 결혼해 지난해 11월 첫 아들을 얻은 김지영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연기가 갑자기 확 늘지는 않았지만 감정에 조금 더 깊이가 생긴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인생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하는 것이 행복하긴 하지만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촬영장 구석에서 가끔 울기도 한다”며 “손태영 씨와 함께 해 서로 이해가 잘 돼서 좋다”고 덧붙였다.

그가 맡은 역할은 매사 적극적이고 막힘이 없는 캔디 같은 성격의 아줌마 윤영희. 어느 날 자신을 버린 남편 강철수(김호진)가 교통사고로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려 새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기억하는 기구한 상황을 맞는다.

## 엄마된 탤런트 김지영·손태영 ‘두 아내’로 나란히 드라마 복귀

김지영은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니 연기를 하면서 자꾸 대입을 하게 되는데 내 남편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떨어져 더 생각도 못했다”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권상우와 결혼해 지난 2월 첫 아들을 얻은 손태영은 ‘두 아내’로 출산 3개월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에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져다준 혼자 귀국해 아이를 낳은 미혼모 한지숙으로 출연한다.

손태영은 “임신했을 때 살이 많이 안 찌긴 했는데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이 빠질 줄은 몰랐다”며 “아기를 낳고 나니 연기하면서 더 감정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아내’의 출연 계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일드라마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큰 역할에 캐스팅돼 기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BC ‘신데렐라 맨’에 출연 중이었던 권상우와 동시에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서로 촬영이 바빠서 오래 보지 못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함께 열심히 하자고 서로 힘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동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2200-551-222-81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팀  
정리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건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국민법률경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매					☎ 062)351-8240 H.P 010-7203-1100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b>아파트</b>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8천	5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38/87	7천9백	3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8천	5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3천	9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41/77	1억1천	4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3천	9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1천	7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245/78	4천	2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1천	7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95	9천9백	6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707/85	2억4천9백	1억2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95	9천9백	6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72	6천2백	4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97/156	1억1천9백	8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2	6천2백	4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6	1억1천	77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340/15	1억1천9백	4천7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6	1억1천	77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58	1억2천5백	8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810/289	6천9백	4천7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58	1억2천5백	8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9천5백	6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36/181	1억1천9백	7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9천5백	6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85	7천5백	4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413/182	1억9천5백	5천2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85	7천5백	4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8	1억5천	1억4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161/158	1억1천9백	9천1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8	1억5천	1억4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145	1억3천	91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277/208	1억9천5백	9천1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45	1억3천	91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6	1억2천5백	8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514/334	3억4천5백	1억9천3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6	1억2천5백	8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91	1억	7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118/91	6천9백	3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91	1억	7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99	4억	2억9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337/179	1억1천1백	7천1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99	4억	2억9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3	9천	6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289/79	2천5백	2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3	9천	6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3천	9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489/150	6천5백	4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1억3천	9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9	1억4천	98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392/318	1억4천5백	6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9	1억4천	98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8천2백	6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880/183	5천1백	1천3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8천2백	6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2	1억2천	84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628/96	1천1백	1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2	1억2천	84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5	1억9천	1억9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903/111	4천9백	4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5	1억9천	1억9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3	1억1천	1억1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331/104	5천9백	4천1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3	1억1천	1억1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3	1억5천	1억1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430/112	3천5백	2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23	1억5천	1억1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1억1천5백	8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414/131	5천2백	3천6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1억1천5백	8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7천	5200	광주	백운동	백운동	1121/122	5천9백	3천6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7천	5200
광주	월계동	월계동	194	1억7천	1억7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1153/133	6천9백	3천6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94	1억7천	1억7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201	1억6천5백	3천5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584/125	6천9백	3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201	1억6천5백	3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6천9백	4천7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426/135	7천3백	4천1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9	6천9백	4천7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1억5천	1억5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780/73	3천2백	2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2	1억5천	1억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5	6천4백	4천5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352/134	5천1백	3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75	6천4백	4천5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5	9천	5천8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광주	월계동	월계동	105	9천	5천8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65	1억9천5백	6천8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광주	월계동	월계동	165	1억9천5백	6천8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9천5백	6천8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광주	월계동	월계동	112	9천5백	6천8백
<b>다세대/상가</b>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광주	월계동	월계동	294/492	7억7천7백	5억4천4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807/696	5억4천2백	3억7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294/492	7억7천7백	5억4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328/482	4억2천	2억9천4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132/877	9억6천7백	5억4천2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328/482	4억2천	2억9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303/448	3억5천7백	1억8천	광주	백운동	백운동	929/784	7억4천9백	2억9천2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303/448	3억5천7백	1억8천
광주	월계동	월계동	421/634	6억5백	4억2천3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5068/916	6억7천8백	4억7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421/634	6억5백	4억2천3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331/731	6억6천3백	4억6천4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광주	월계동	월계동	331/731	6억6천3백	4억6천4백
<b>상가</b>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광주	월계동	월계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75383	8천4백	8천4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175383	8천4백	8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75383	8천4백	8천4백
<b>상호</b>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구	소재지	지번	면적(m)	감정가	최저가
광주	월계동	월계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470	6천5백	3천9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75383	8천4백	8천4백	광주	백운동	백운동	175383	8천4백	8천4백	광주	월계동	월계동	175383	8천4백	8천4백

• 상기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